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음 9월 8일) 제19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석해 전북 홍보관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과 함께 스카우트 항건을 목에 걸고 스카우트 경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에 축하,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 전북, 삼락농정·투어패스 홍보

성공정책들 문 대통령 등과 공유  
송 지사 "새만금 잼버리 개최 지원"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념식과 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생활속 지방자치의 성과들과 주민이 직접 참여한 정책사례들이 전시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도 정책홍보관에서 지난 8월 유치에 성공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삼락농정, 전북투어패스 정책을 홍보하고 향토산업전시관에서는 군산 장아찌와 한과, 진안 마이산 발효쌀, 무주군 약초농업조합, 무주 반

달벌 벌꿀, 장수홍삼에서 향토자원을 전시 판매 할 예정이다.

26일, 지방자치 기념식에는 VIP, 행안부장관 등 중앙부처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자치분권 여수선언 등의 행사를 벌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행안부장관 등 중앙부처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 시도의 정책전시관을 둘러 시도의 성공정책들을 공유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전시관을 찾은 대통령 및 내빈들에게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유치효과 및 성공개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으며,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카드한장으로 싸고 편하게 전북여행을 누릴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정책 등을 홍보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화합과 참여를 유도한다.

26일~29일 지방자치 스무고개 등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와 체험의 장을 진행한다. /김진성 기자

##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 물꼬

### ▶ 도의회 송지용 의원 제안

송하진 지사 "취지에 공감 청문 TF 결성" 의회에 요청

송 의원 "안전문제 제기된 소방항공대 이전 진행" 요구



을 추진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고 송하진 지사(완주, 더불어민주당·시진)은 26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히며 의회에서 인사청문 TF를 결성해 '전라북도 인사청문 시스템'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 의회는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고 송하진 지사(완주, 더불어민주당·시진)은 26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히며 의회에서 인사청문 TF를 결성해 '전라북도 인사청문 시스템'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지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각계각층이 참여 할 '인사청문TF' 운영과 전라북도만의 '인사청문 시스템'을 만드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헬기 이착륙시 안전문제가 제기된 소방항공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해 지사로부 터 2019년에 이전 할 것이라 답변을 받았다. 또 전북도 소방헬기가 노후화 되고 소형기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중형헬기 도입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아울러 119 소방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해, 시군이 종료된 전북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난 시군의 성과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소득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북혁신도시 12개 기업은 21억을 납부한 반면, 경북은 719억을 납부해 무려 34배의 소득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가오는 혁신도시 시즌에서는 시군의 실적을 반면교사 삼아 추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150여개 기관 유치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타시도에 비해 전북혁신도시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 규모가 작아 확대가 필요하고, 전주시, 완주군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신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접근성 확대와 미래전북 발전을 위한 SOC 확보차원에서 전북지역 KTX역 신설을 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고찰을 통한 합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습니다.

매일 INDEX  
12면 -전주 비빔밥 축제 개막

## 전주시, 생산성 대상 전국 시단위 최우수

문화기반 시설 확충 성과 등 타 지자체들에 비해 우수

전주시가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시 단위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96곳이 응모한 이번 생산성 대상은 △주요 SOC 확보차원에서 전북지역 KTX역 신설을 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고찰을 통한 합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김진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주시를 최우수 상으로 선정 이유로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이용을 성과가 높고 △주민의 스트레스 인지를

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으며 △주민수 대비 평생교육 시설 수, 시설 이용율이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조건과 문화기반시설 함양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생산성 지표별 측정결과에서 △문화기반시설 이용수준 △보건의료시설 확충수준 △보육시설 이용수준 △지역 주민 행복도 △평생교육시설 이용수준 △통합재정수지비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영역과 지역주민 행복도 지표, 지자체역량 영역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최우수 등급인 S부터 A, B, C등급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기반을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등급인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것은 전주시가 민선6기 들어 재정상황과 경제상황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민근 기자

**제21회 정음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2017년 10월 26일 ~ 10월 30일 (5일간)  
개회식 : 10. 28(토)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주차장) 정음시 덕천면 우덕리 869-1

정음축산물 판매 / 농·특산물 판매행사 | 주최 / 주관 | 정음시 | 후원 |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음시지회 | 문의 | 정음시청 축산과 539-6351~3